

INTERNI

& Decor



JANUARY. 2020



Find My Own Lifestyle
나를 돌보는 오아시스

어쩌다 발견한 브랜드

MATERIAL

최근 전자재 업체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다수 등장했다. 기존 매장에서 인테리어나 문화 관련 클래스를 여는 단계를 넘어 아예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공간을 만들어 건축가 초청 세미나, 미술 작품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관련 행사를 펼친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둔화하면서 후방 산업인 전자재 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B2B 방식 위주이던 시장이 대규모 업체 수요 감소, 셀프 인테리어의 인기에 B2C 방식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띠자 전자재 브랜드는 개별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을 느꼈고, 그 매개로 문화·예술을 주목한다. 문화·예술은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아 다양한 고객층을 유입할 수 있는 데다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각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재 소재와 연관된 특화 전시나 건축 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 수요층을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아그라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Genevieve Lutkin



@Jaime Navarro

Design / Esrawe Studio
Location / Avenida Acueducto 6050, Lomas del Bosque,
Guadalajara, 45140 Zapopan, Jalisco, México
Area / 5,701㎡
Photograph / Genevieve Lutkin, Jaime Navarro, César Bójar



대리석을 불규칙한 각도로 깎아
채식장에 온 느낌을 낸 아그라
@César Bójar



Focus on 건축 자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사회 문화 거점으로 자리한다.

멕시코의 석재 브랜드 ARCA가 새롭게 오픈한 쇼룸 겸 복합문화공간 GRUPO ARCA는 전통 소매 공간에서 탈피해 건축, 디자인, 예술,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이다. 채석장을 모티브로 한 기묘한 디자인을 ARCA의 석재로 구현해 존재감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모놀리식으로 계획한 검은색 콘크리트와 그 사이로 언뜻 드러나는 대리석이 시선을 압도하는 파사드의 작은 입구로 들어서면 공간의 핵심인 아고라가 나타난다. 아고라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전시회, 영화 상영,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 특히 쇼룸이 위치한 Guadalajara(과달라하라) 예술 현장에 초점을 맞춰 지역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끈다. 3개 층 높이의 대리석 벽면으로 둘러싸였으며, 지질 단층 같은 무늬와 불규칙한 각도 덕분에 채석장 한가운데서 있는 듯하다. 본관 1층에서는 건축 관련 소재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디자인 센터와 개별 연구실이 마련된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하면 카페 겸 도서관에서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서적을 마음껏 볼 수 있다. 반대편 건물에는 ARCA의 수많은 석재 샘플을 살펴볼 수 있는 Warehouse가 자리한다. QR 코드를 통해 석재 샘플의 정보를 확인하고 축적된 데이터로 맞춤형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목재와 석재 등 건축 관련 자재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장. 검은색
홀에 전시품을 끼우듯 배치해 갤러리 느낌을 의도했다.
@Aime Navar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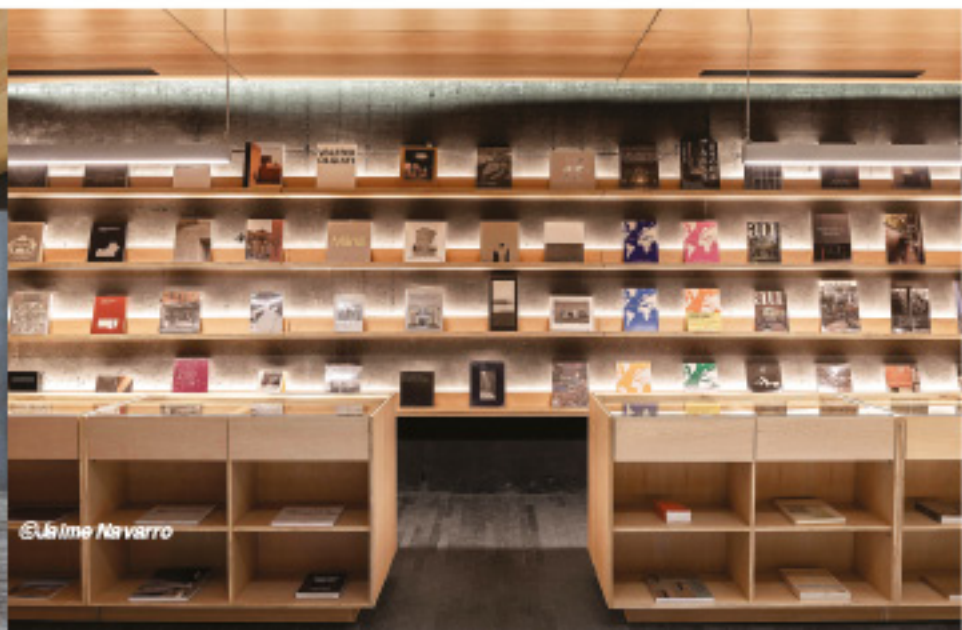
@Genevieve Lukin



@César Béjar



3층에서는 건축과 예술 관련 서적을 보고
차를 마시며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César Béjar



@Aime Navarro



@Genevieve Lufkin



@Genevieve Lufkin



테라스를 기준으로 본건과 Warehouse가 구축된다.
@Genevieve Lufkin



비문기를 위한 화장실.
@Genevieve Lufkin



숲과 어우러져 하나의 자연 풍경을 이루는 Warehouse.
건물 구조물이 스텝을 조금 더 나아 시켜줄 것이다.
@Genevieve Lufkin